# 복음

본당의해 II (2018-2020년)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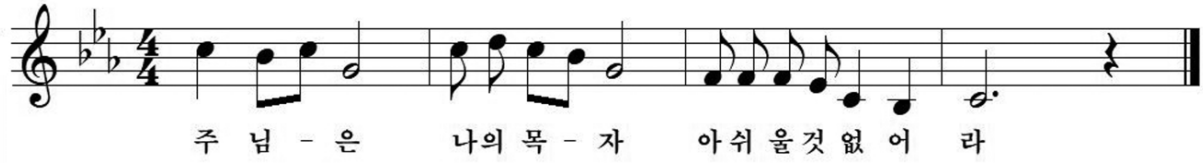

## 2020. 5. 3. 부활 제4주일(성소주일, 생명주일)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요한 10,9)

교구 가톨릭사진회

**제1독서** 사도 2,14ㄱ.36-41 **제2독서** 1베드 2,20ㄴ-25 **복 음** 요한 10,1-10

**화 답 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복음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제2105호] 발행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무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 전자우편 hongbo@gjcatholic.or.kr | 전화 062) 380-2811 www.gjcatholic.or.kr

# 나는 행복의 문이다.

*행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성소 주일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나는 문이다."(요한 10, 9)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말씀이지만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나는 문을 통과해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생각 가운데 세례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처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사도 2,38)라는 그 장면에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청년 때 회개하였고 세례를 받았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을 통과해 '문' 안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로 사제가 되었고 예수님이 초대한 '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줍니다.

저는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미 그 '문' 안에 들어와 있지만 참된 '행복의 문'을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미 그 안에 있지만 완성된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과 사랑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간혹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삶을 붙들고 고난 너머에 있을 희망을 마음에 품고 행복의 문을 향해 예수님의 삶을 뒤따릅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 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은 은총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1베드 2,20-21)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의 십자가를 지고 저 '행복의 문'을 지나가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길을 걸어가시고 뒤따라오도록 발자취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기꺼이 응답합시다. 행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멘.

박기석 대건안드레아 신부
성소국장

# 나는 전쟁포로였다(*I was a war Prisoner*) V

1946년 2월
패트릭 도슨*Patrick Dawson* 신부

## 재판을 앞두고

우리는 제주도에서 본토로 끌려 왔다. 이후 광주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목욕을 막 하고 나왔더니 간수들이 파란색 기모노*Blue Kimonos*를 우리에게 지급하였다. 기모노에는 재판 대기중이라는 의미의 미결수 배지가 달려 있었다. 구치소에서 우리는 함께 있지 못하고 각각 흩어져 수감되었는데, 나는 특별하게도 살인자 두 명, 강도 한 명과 함께 같은 방에서 지내야 했다. 감방에 의자가 없는 건 당연했고, 겨우 몸만 누일 정도의 공간밖에 없었다. 불결한 상태임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그 감방에서 1942년 7월 5일부터 첫 재판일인 12월 5일까지 지냈다. 기소 내용은 일본 정부에 맞선 간첩 행위였다!

재판 당일 아침 팔에는 수갑, 발에는 짚신, 머리에는 지푸라기 복면을 쓰고 포승줄에 굴비 엮듯 엮여서 800미터 정도 떨어진 재판정까지 걸어갔다. 광주는 인구 8만의 도시이다. 무장한 호송대를 대동하고 일렬종대로 걷는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런 모습이 새로울 것이 없는 일상적인 광경이었기 때문이다.

## 재판

큼지막한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신부 세 명과 가톨릭 신자 열네 명이 앉아 있었다. 우리 맞은편에는 검은 가운을 걸친 판사와 네 명의 검사들이 앉았다. 맥폴린*MacPolin* 몬시뇰과 다른 골롬반 선교사들은 출소해 있었으나 가택연금 중이었기 때문에 한국인 변호사만 보내 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본인 검사들의 공세에 위협을 느꼈는지 변호사는 5분 만에 우리 측 변론을 마쳐버렸다. 차라리 내가 직접 변론했으면 더 나았을 것을… 스위니*Sweeney* 신부는 변호사가 한 일이라고는 형량을 늘린 것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용수(죄인이 쓰는 모자)를 뒤집어 쓰고 법정에 들어가는 박열, 가네코 후미코 부부

박열의사기념관

검사는 우리가 해군 기밀을 누설하였다고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신자들에게 입증을 요구하였다. 신자들은 이전에 진술한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부인하였다. 나는 순간 일어나 만세 삼창을 부르고 싶었다. 오전 8시에 시작한 재판은 오후 3시에 끝났다. 검사가 구형한 스위니 신부와 라이언*Ryan* 신부의 형량은 1년이었다. 신자들에게 각각 6개월부터 3년 반 가량을, 나에게는 4년의 형량을 구형하였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1) 「The Far East」는 대한민국에 왔던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들이 사목활동의 성과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글로 썼고, 이를 실은 잡지다.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57차 성소 주일 담화 요약

# 성소에 관한 표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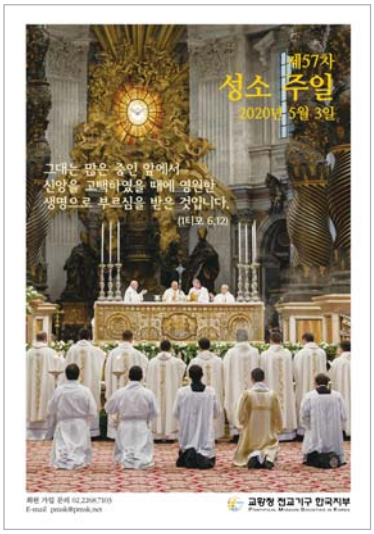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57차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이번 성소 주일 복음 구절의 배경 곧, 티베리아스 호수에서 폭풍우 치던 밤에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화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마태 14,22-33 참조).

성소에 관한 첫 번째 표현은 **감사**입니다. 올바른 항로를 향하여 배를 저어가야 하는 과제는 그저 우리 노력에만 맡겨진 일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여정에만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그 무엇보다 이는, 높은 데서 오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인 건너편 강가를 가리키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배에 오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분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한편, 키잡이가 되시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일러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마음을 열어 감사를 드리며 하느님께서 우리 삶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깨달을 때라야 우리는 성소를 발견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다가오시는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14,27).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성소 여정에 언제나 함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표현인 **용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러 오시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세번째 표현인 고통-고단함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평신도, 사제 그리고 축성 생활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성소를 통하여, 우리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에 우리 삶을 바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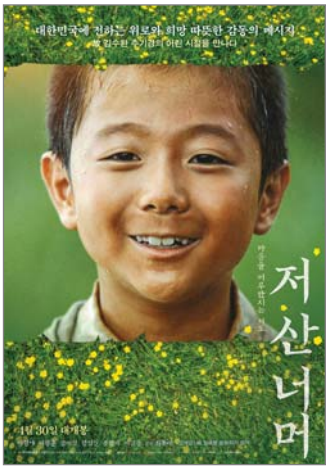



파도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삶은 **찬미**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찬미라는 이 말이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성소에 관한 마지막 표현입니다. 찬미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같은 내적 자세를 함양하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께 머무신 주님의 눈길에 감사드리고,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간직하시며, 용감하게 당신의 성소를 받아들이시어, 당신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영원한 찬미의 노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특히 이 성소 주일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일상 사목 활동을 통해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성소를 증진할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교회가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빕니다. 하느님께 "예."라고 대답할 용기를 찾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온갖 고단함을 이겨 내어, 우리의 삶이 마침내 하느님과 형제자매들과 온 세상을 향한 찬미의 노래가 되기를 빕니다. 동정 마리아시여,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 '저 산 너머' (2019) 2020년 4월 30일 개봉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로마 8,30)

영화 〈저 산 너머〉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린 시절을 다룬 정채봉 동화작가의 〈바보 별님〉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7살 소년 수환은 평생 옹기장이로 살다 병든 아버지와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행상하는 어머니, 형 동한과 살고 있다. 비록 가난했지만, 수환은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형과 동네 친구들과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낸다. 때로는 친구들과 서리를 하다가 혼나기도 하고, 첫사랑인 이웃집 선자 누나와 알콩달콩한 시간도 보내면서 성장한다.

극히 평범해 보이는 수환의 가족이 남들과 다른 것은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수환은 아픈 아버지의 마지막 종부 성사를 위해서 집을 방문하신 윤 신부님을 통해 할아버지의 순교와 할머니가 사셨던 믿음의 삶을 알게 되고, 아픈 아버지는 죽음 이후의 삶을 그가 알아듣게끔 설명한다. 여기에 사제 서품식을 우연히 보게 된 어머니는 아들들의 마음 밭에 사제 성소라는 특별한 씨앗을 심는다.

그런데 어머니의 뜻을 따르려는 형 동한과는 달리 수환은 사제 성소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아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남은 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평범한 삶을 꿈꾼다. 형을 만나러 어머니가 대구로 떠나고, 혼자만의 며칠의 시간 동안 수환은 '저 산 너머'에 있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

이 영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제 성소도 소위 어머니의 성소(어머니가 아들에게 사제의 삶을 권유하는 경우)였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 안에 살며 어머니가 삶의 전부였던 수환이 이제 어머니 대신 천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초대되었고, 시간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그 부르심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봉헌하게 된다.

천주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가정을 이루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역할은 신앙의 씨앗을 자녀의 가슴에 심는 것이다. 그리고 한순간의 말이 아니라 공동체적 기도와 신앙을 살아가는 삶의 모범이 따를 때 신앙의 씨앗은 굳건하게 자녀 마음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사제 성소이건 수도 성소이건 결혼 성소이건 신앙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특별한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것이 신앙을 살아가는 가정에 깃든 신앙의 신비이며, 내 가정 안에서 지금 살아가야 할 가치이다. 공동체의 미사를 재개하면서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하여 말씀과 성체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충만한 은총과 기쁨을 체험하기를 바란다.

조용준 니콜라오 신부
성바오로 수도회, 가톨릭영화제 집행위원장

## 통신교리(우편 · 인터넷) 안내

- 본당 교리반에 나갈 수 없는 예비신자와 첫영성체 교리 대상 신자
- 다시 교리공부를 하고자 하는 신자

* 세례 받을 본당의 사제와 면담 후 신청서 작성
* '교구 홈페이지(www.gjcatholic.or.kr) 교구청 소개-사목국-통신교리 배너'를 클릭하면 이용 안내 및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62) 380-2832

## 〈감사의 글〉

지난 4월 23일 세상을 떠난 저희 부친 이재홍 야고보를 위해 많은 기도와 위로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남 신부 가족 일동-

##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 5.8(금) 16:00
장소 : 평생교육원 3층 경당
문의 : 062) 380-2843

* 군 입대를 앞둔 예비군인과 부모님께는 주교님께서 안수를 해주십니다.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 '빵 다섯 물고기 둘' 후원 안내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우리 교구 내 산하 사회복지시설, 교정사목, 병원사목,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농협 : 605-01-353182
광주은행 : 019-107-310370
우체국 : 500066-01-013298
국민은행 : 551-01-1449-309

후원회원을 위해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감사미사 봉헌
- '빵 다섯 물고기 둘' 회보 발송(분기별)
- 후원금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 생애주기별기부 '나눔의 첫걸음' 안내

첫돌, 결혼, 생일, 취업, 축일, 승진, 개업, 퇴직, 회갑 등 의미 있는 날, 특별한 날의 기쁨을 난치병 환우와 미혼모자에게 나눠주세요.
소중한 나눔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문의 : 062) 510-2893

##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c.com FM 99.9MHz FM 99.5여수MHz
페이스북 kjpbc99.9mhz 트위터 kjpbc

### 오늘의 강론 [월-토 (본방송) 06:50-07:00] [월-금 (재방송) 16:50-17:00]

5.4(월)-6(수) 최용환 신부(지산동 본당) / 5.7(목)-9(토) 이호 신부(삼학도 본당)

### 〈5 · 18 40주년 특별 인터뷰〉 '윤공희 대주교를 만나다 1, 2부'

5 · 18광주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습니다. 올해로 사제수품 70주년을 맞은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는 광주대교구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한국 천주교회의 살아 있는 증인입니다.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광주의 아픔과 진실을 외부에 알리고, 신군부로부터 핍박을 받은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40년 전 윤 대주교님의 기억과 회상을 통해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5 · 18광주민주화운동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의미와 과제를 주고 있는지 성찰해봅니다. 총 2부작으로 구성한 '특별 인터뷰'는 윤공희 대주교의 삶과 신앙, 이산가족의 애환, 5 · 18당시 사제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담담하게 담아내 평화방송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방송 일시 : 5.18(월) 16:00-18:00, (재방송) 5.23(토) 16:00-18:00
TV 방송 일시 : 5.15(금) 22:30, 5.17(주일) 15:00, 5.18(월) 19:00, 5.20(수) 01:00
여러분의 많은 청취와 시청 바랍니다.

##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kccei.com

광주가톨릭문화원 가톨릭갤러리 현 책더하기사랑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T. 062) 380-2218

※ 코로나19확산 방지 및 수강생의 안전을 위해 1학기 개강을 5.6(수)부터 진행합니다.

### 2020년 1학기 수강생 모집

신학 · 영성 생태영성학교/수도자아카데미 성경 화요신약성경 철학 현대철학사/철학고전읽기
어학 스페인어/ 주부영어교실 무용 실버성가무용/전통무/우리춤(작품 · 창작) 미술 교회미술/한국화
자격 가톨릭상담심리사/인지활동지도사/웃음지도사/미술상담심리사/우리춤체조/커피프로마스터
교회음악원 성음악사/음악기초이론/그레고리오성가Ⅰ/성가합창발성법Ⅰ/지휘/오르간(전문)/화성학Ⅰ 교회음악원합창반/그레고리오성가합창반
음악 가야금/민요/판소리고법/색소폰/클라리넷/바이올린/플루트/발성명가곡교실/성악/통기타 클래식기타/피아노/오르간(일반 · 성가반주)/ 대금/오카리나/난타
교양 음악심리·한박자쉬고/가톨릭공예(양초 · 조각초 · 매듭묵주)/ 사진교실/시낭송을통한감성스피치/해설이있는클래식음악감상/생약초와 정원코디네이터/영화로 성경읽기

### 장례지도사 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국가자격 상장례지도사교육 표준교육과정반)

[기간] 5.9-11.22/1년/토, 주일 [시간] 09:00-18:00(이론 250시간, 실습 50시간 [수강료] 100만 원(식사비 별도)
가톨릭상장예식을 바탕으로 본당에서 꼭 필요한 연도 및 전례교육, 염습 등 장례 관련 교육을 진행합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안내

-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이들(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 신자, 감염증에 취약한 노약자 및 심리적 이유 등)은 집에서 방송미사, 묵주기도, 성경 봉독(말씀 전례), 선행 등으로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 가능
- 개별 고해성사를 통한 부활 판공성사를 성모승천대축일(8.15)까지 연장
- 일정기간 동안 매일미사를 영상으로 제작(녹화)하여 유튜브 및 페이스북에서 서비스 할 예정

코로나19로 인한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지나가고 슬기롭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관 · 단체

### 파티마성모님요청지향 교구 쎌묵주기도
일시 : 매주 월요일 09:30-11:00
장소 : 평생교육원 3층 경당
지향 : 세계평화, 죄인들의 회개,
남북평화통일, 가정성화
문의 : 파티마세계사도직
010-6490-8475

### 빡! 독! 청년성경통독
일시 : 5.6(수)부터
매주 수요일 8주간
장소 : 바오로딸서원
참가비 : 1만 원
문의 : 010-9610-2539

### 35회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야캠프
일자 : 7.25(토)
설명회 : 5.30(토) 14:00
대상 : 청소년, 대학생, 가족 연수
국가 : 필리핀, 캐나다
문의 : 광주청소년수련원 070) 4365-7297

### 5.7(목) 예정되었던 예수회 월례 특강은 취소되었습니다.
문의 : 02) 3276-7777

###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 · 오름 트레킹
(모든 일정은 왕복항공예약 포함하여 접수가능)
제주성지순례
5.9(토)-12(화), 5.20(수)-23(토),
6.7(주일)-10(수), 8.31(월)-9.3(목)
자연순례피정
5.15(금)-17(주일), 5.25(월)-27(수),
5.29(금)-31(주일), 6.2(화)-4(목)
접수 : 02) 773-1463, 064) 756-6009

## 수 도 회

###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성소모임
기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5:00
-주일 13:00
장소 :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본원
(경북 왜관)
문의 : 010-8353-2323

### 예수고난화-떼제미사와 기도학교
일시 : 현재-6월 19:30-21:30(매주 수)
장소 : 일곡동 명상의 집
문의 : 062) 571-5004

### 예수고난회-개방의 날
일시 : 5.8(금) 10:00-15:30
내용 : 성사, 강의, 미사(점심무료)
문의 : 062) 571-5004

### 예수고난회-성지순례
일자 : 5.12(화) 07:20-14(목)
출발 : 일곡동 명상의 집 주차장
순례비 : 1인 25만 원(2박 3일)
문의 : 062) 571-5004

### 예수고난회-어르신피정
1차 : 5.20(수) 13:00-21(목) 14:00
2차 : 6.16(화) 13:00-17(수) 14:00
주제 : "마음이 멈춘 그 순간-용서와 화해"
대상 : 65세(1956년 출생)이상 어르신
피정비 : 무료
인원 : 약 80명
문의 : 062) 571-5004

### 예수고난회 은인모임(접수순)
일시 : 5.23(토) 17:00-24(주일) 12:30
대상 : 예수고난회 후원자
문의 : 062) 571-5004

제10회 생명 주일 담화(요약)

## '하느님만이 생명과 죽음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생명과 죽음은 하느님 손에, 그분 권능에 달려"(「생명의 복음」, 39항) 있고, 생명과 죽음의 유일한 원천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심을 명심하면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낙태 합법화의 길이 아니라, 낙태가 만연하는 사회상을 쇄신해 나가면서, 태아와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고 남성과 여성이 공동 책임을 지며 의사와 의료 기관이 양심적으로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과 관련한 유전자 가위 기술은 우생학적 사고의 개입, 수퍼 베이비 추구와 맞춤 인간 형성, 남녀 차별과 장애인 차별의 악습 양산과 정당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배아 연구와 인공 수정, 유전자 진단과 조작, 응급 피임과 낙태 같은 의과학 기술은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와 관련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자살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돌봄

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치지 말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생명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것,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보이는 것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맡기신 임무"(「생명의 복음」, 42항)입니다. 코로나19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루빨리 안정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 용 훈 주교